

백악관 “美해군 전투함 등 4척 해외 건조”...의회에 요구

미국 백악관이 미 해군의 전투함과 비(非) 전투 지원함을 각각 2척씩 해외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연방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우선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의 입장이 의회 입법에 실제로 반영될 경우 미국과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진행 중인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기대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 같은 내용을 '2027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행정부 정책입장서(SAP)'에 담아 NDAA를 심의 중인 의회에 지난달 21일 제출했다.

이 문서에서 백악관은 “행정부의 제안은 해군이 해외 조선소와 계약을 체결해 수상 전투함 2척, 비전투 지원함 2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해군 함정의 해외 조선소 건조를 통해 미국 조선소의 “건조 적체”를 해결할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해외 조선소의 건조·정비·수리 관련 대규모 직접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특히 백악관은 미 해안경비대의 중형 쇠빙선 프로그램에 처음 적용된 ‘핀란드 모델’을 예로 들었다. 초기 함정은 해외에서 빠르게 확보하되 해외 조선소의 기술과 생산방식을 미국 조선소로 가져와 자체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의 SAP (Statement of Administration Policy)는 미 행정부가



미 해군 신형 호위함의 기반이 될 레전드급 경비함.

연립 뉴스

내년도 국방수권법 심의에 의견 제시…韓 수주 가능성
트럼프도 “韓과 건조 협력”…의회선 해외발주 부정적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을 의회의 법안 심의를 위해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문서다.

이번 해의 건조 구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거론하며 “그들은 우리와 선박(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면서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예고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다만, 이러한 행정부의 입장이 의회의 NDAA 심의 과정에서 그대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전두함 해의 건조의 경우 의회는 물론 행정부 내에서도 안보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으로 해군 함정의 외

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양성을 위해 한 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언급 됐지만, 전투함의 해외 건조는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앞서 이와 별도로 NDAA를 의결하면서 비전투함인 '벌크 연료선 및 전락 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비전투함뿐 아니라 전투함까지 해외에 발주해야 한다는 미 행정부의 이번 방침을 놓고 의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호르무즈 개방 협상 탄력…카타르 “합의 초안 회람 중”

“매우 진전된 단계”…美 “오늘이나 내일 개방 합의” 낙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한 합의 초안이 회람되고 있다고 블룸버그와 CNN 방송 등 미국 언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제드 알 안사리 카타르 외부 대변인은 이날 기지들에게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진전된 단계”에 있다며 “잠재적 합의를 담은 초안이 현재 회람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역내 여러 국가가 미국과 이란 간 협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 중이라며 오만과 '양측(미국·이란) 대화를 촉진하고 아이디어와 초안을 교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알 안사리 대변인은 미국과 이란 간 직접 협상이 예정돼 있지는 않다고 말하며 중재 노력을 통해 양측 직접 회담이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덧붙혔다.

카타르 측의 발언 후 미국도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낙관적인 언급을 연이어 내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 "비핵화에 관한 장기적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단기적으로 더 많은 선박이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오만과 이란 사이에 대화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오늘이나 내 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합의 예상 시점을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히로시마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제 엄수

2차 세계대전 말인 1945년 8월 6일 일본 혼슈 서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희생된 한국인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5일 현지에서 엄수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위령제는 원폭 투하 일을 하루 앞둔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 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열렸다.

위령제에서는 지난 1년 새 원폭 피해로

인한 사망이 확인된 2명을 포함한 한국인 사망자 2826명의 명단이 봉납됐다.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히로시마현지방본부 김기성 단장은 추도사에서 "한국인 피폭자와 그들을 돕기 위해 헌신한 이들의 역사를 후세에 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등의 이유로 히로시마와 나가사



키에 거주하던 한국인 가운데 원폭 피해자는 사망자 약 4만명, 생존자 약 3만명 등 7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연습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